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93호
2024.02.08.(목)

※ 제94호는 한 주 휴간 후 2.22(목)에 발간됩니다.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 【미국】 美 상무부,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및 세부 이행 일정 발표
- 【EU】 EU 집행위, 기술적 문제로 인한 CBAM 보고 지연 시 기한 연장 허용
- 【EU】 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3자 합의 도달

주요 산업별 이슈

- 【광물·에너지】 韓·호주,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 논의
- 【이차전지】 中 배터리 기술, 포드에 이어 다임러·GM에서도 우회 수입
- 【에너지】 유럽 승용차 CO₂ 배출량 감축 효과 미미...유럽감사원(ECA) 발표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EU, 통상】 美·EU 제5차 무역기술위원회(TTC) 주요 논의 내용 및 전망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美 정부 LNG 규제 발표에도 시장 안정세 지속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안건형 교수, 美·中 패권경쟁에 따른 美 무역통상 정책과 ESG와의 관계 이해

III. 공급망 소식통

한국무역협회, 한·남아공 무역·투자 세미나 안내
주한미국대사관, 한·미 이차전지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개최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미국

美 상무부,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및 세부 이행 일정 발표

- 🕒 1.31일(현지시간) 美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IPEF 공급망 협정*이 2.24일 美·日 등 일부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라 발표
 -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韓·美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新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로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4개의 필라로 구성
 - » 지난 '23.11월 IPEF 협정 체결된 이후 5개국은 1.25일 美 예탁기관인 국무부에 비준·수락 및 승인문서 기탁 완료하였으며 규정에 의거, 5개국 이상 기탁 완료 시점부터 30일 후 협정 발효
- 🕒 美 상무부는 3개의 IPEF 공급망 협정 이행 기구(공급망 위원회, 위기대응 네트워크, 노동권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세부 일정을 제시
 -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포함 4개 필라 중 3개가 마무리되었으며, 무역(필라1)에 대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美 상무부 보도자료('24.1.3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09호('24.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EU

EU 집행위, 기술적 문제로 인한 CBAM 보고 지연 시 기한 연장 허용

- 🕒 1.29일(현지시간) EU 관세총국은 CBAM* 등록부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등록 지연에 대비, 등록부에 ‘지연 허용 요청(request delayed submission)’을 추가한다고 발표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의 2차 가공 제품이 대상
 - » CBAM 대상품목 수입자는 '23.4분기 수입품목에 대해 1.31일까지 전환 기간 CBAM 등록부에 수입 제품 총량, 원산지에 既납부된 탄소 가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 » 보고 지연 허용 요청은 2.1일부터 CBAM 등록부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 기간 30일 연장 가능
- 🕒 첫 번째 CBAM 보고 시 기술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CBAM 등록부 웹페이지가 정상 운영될 시 보고서는 즉시 제출 의무
 - » 보고서 수정 기간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보고 기업은 기한 내 자유롭게 내용 수정 가능
 - * 첫 보고서 수정은 7월 말까지 가능

출처: KBA Europe('24.01.3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3자 합의 도달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집행위·이사회는 집행위가 '22년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으로 변경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합의

*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22.9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으로 공급망 위기 시 각국의 국경 폐쇄와 제한 조치 도입 등을 통해 단일시장 붕괴와 공급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

- ▶ 동 법안은 경제위기,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EU 역내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위기 모니터링, ▲경계상황 또는 위기상황 등 경보 발동, ▲회원국 간 위기상황 대응 협력 시스템 가동 등을 규정
- ▶ 구체적인 위기 대응 조치로는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 요구, ▲특정 주문 우선 공급요구, ▲위기 대응 상품 및 서비스의 회원국 간 공동구매 추진 등이 있음

해당 법안을 통해 집행위는 각종 위기 예측·대응 및 역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예정

▶ 동 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승인 후 공식 채택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18개월 후 적용될 전망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24.2.1), KBA Europe('24.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광물·에너지

韓·호주,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 논의

2.2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에서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발표

- ▶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개발·생산 등 업스트림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및 가공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
- ▶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韓·호주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키로 합의

한편, 韓 정부는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양국 간 기업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의방안 모색

▶ 산업부 장관은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의 일몰 시점 연장('22년 → '30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호주 측에 요청

* 호주 천연가스 수출제한조치(ADGSM): 호주 내수용 가스 부족 시,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 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규율하는 메커니즘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이차전지

中 배터리 기술, 포드에 이어 다임러·GM에서도 우회 수입

- 📍 1.3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세계 상용차 제조사인 獨 다임러가 中 이브에너지와 합작해 미국에서 LFP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
 - ▶▶ 다임러트럭, 아셀레라, 파카 등 3사는 미국 內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고, 미시시피주 마셜 카운티에서 연 21GWh 규모로 '27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전망
 - ▶▶ 이브에너지는 합작공장의 지분 10%만 보유할 예정이며, 이는 美 정치권의 중국 디리스팅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의 지분율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됨
 - *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우려단체(FEOC)'로 지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규정 고려
- 📍 작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 ▶▶ IRA 수혜를 기대하고 美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韓 배터리 업계에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해온 韓 업체들은 '26년부터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

출처: 한국경제('24.1.30)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에너지

유럽 승용차 CO₂ 배출량 감축 효과 미미...유럽감사원(ECA) 발표

- 📍 1.24일(현지시간) 유럽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CO₂ 감축 정책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10~'22년) 승용차의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
 - * (휘발유車) 배출량 4.6% 감소 / (디젤車) 배출량 유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실험실·실제 배출량 간 평균 격차 약 250% 발생
 - ▶▶ 엔진기술 개선 등 차체 효율성은 향상되었으나, 엔진 출력 및 평균 크기·중량 증가로 인해 기술 진보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추정
 - ▶▶ 실험실 측정 배출량과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량 간 격차 문제는 데이터 정확성 문제가 지적되며, 역내 관계당국의 제조사 신고와 실제 배출량 비교 또는 테스트 참관 등 형식승인 수행방식이 미비하다고 평가
- 📍 유럽감사원은 EU 운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
 - ▶▶ 감사원은 후속 조치로 ▲필수 배출량 적합성평가, ▲실제 차량연료 소비 정보 공개, ▲기존 제조업체 차량별 목표를 무공해 차량 최소 비율로 대체 등을 제안

출처: EU 주간 브리핑 제115호('24.1.31)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EU, 통상 美·EU 제5차 무역기술위원회(TTC) 주요 논의 내용 및 전망

1.30~31일(현지시간) 美·EU 양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제5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협력 강조

* 무역기술위원회 개최 현황: [1차] 美 피츠버그('21.9월) → [2차] 佛 파리('22.5월) → [3차] 美 메릴랜드('22.12월) → [4차] 스웨덴 룰레오('23.5월)

▶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인공지능, ▲반도체·핵심 광물 공급망, ▲녹색 상품 기술 무역 협력 강화, ▲디지털 무역 등 양국의 공동이익 실현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

제5차 무역기술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p>개 요</p>	<p>🔍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p> <p>▶ (개 요) 범대서양 무역과 유망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및 기술 주도권 강화 등 美·EU 간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양국의 장관급 인사 5인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는 위원회</p>
<p>① 인공지능(AI)</p>	<p>▶ (개 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협력 확대 추진</p> <p>①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별 위험 관리, ▲윤리 및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표준화, ▲상호 운용성 확보 등 공동의 로드맵을 통한 구체적 계획 수립</p> <p>② (AI 공동 표준 제시) 생성형 AI 콘텐츠의 워터마크 도입 및 레드팀(Red Team) 훈련* 시행 등을 언급하며 AI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한 공동의 표준 설정 제시</p> <p>* 레드팀(Red Team) 훈련: 가상의 훈련을 통해 AI 시스템의 위협을 모델링하고 평가하는 사이버 보안 기법</p> <p>③ (신기술 규제 마련) 6G,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TTC 역할을 강조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규제 및 표준 마련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협력 필요성 공감</p>
<p>② 공급망 안정화</p>	<p>▶ (개 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동 경보 메커니즘 활성화</p> <p>① (공급망 공동 대응 강화)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 ▲핵심 광물, ▲의약품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 생산능력 확대, 연구개발 투자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동 대응 노력</p> <p>② (노동자 권리 보호) 지난 2차 무역기술위원회에서 설립된 무역노동협의회(TALD)를 통한 노동자 권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p>
<p>③ 녹색 상품·기술</p>	<p>▶ (개 요) 녹색 상품·기술 무역 협력 강화</p> <p>① (MRA* 확대) 녹색 기술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기계·전기 장비 적합성평가 시행 통해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 제안</p> <p>*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정당사자 간 제품·서비스 표준 및 기술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협정</p> <p>② (기대효과) MRA 협정 확대를 통해 ▲美·EU 간 무역 강화, ▲對中 수입 의존도 감소, ▲공급망 다각화, ▲청정 기술 및 녹색 상품 영향력 확대 기대</p>
<p>④ 디지털 무역</p>	<p>▶ (개 요) 디지털 무역 및 수출 통제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p> <p>① (표준화 확립)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상품·기술에 대한 원활한 무역을 위해 안전성·효율성 측면에서의 표준화 강조</p> <p>② (규제 완화) 레드 테이프(Red Tape)* 감소를 통한 ▲기업 활동 촉진, ▲안보 협력 강화, ▲디지털 무역 환경 개선, ▲투자 스크리닝, ▲수출 통제, ▲이중용도 혁신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표명</p> <p>* 레드 테이프(Red Tape): 행정 분야의 번거로운 체계를 뜻하는 용어로 과도한 행정 절차에 의해 비효율성이 초래될 때 쓰이는 단어</p>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09호('24.01.31)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美 정부 LNG 규제 발표에도 시장 안정세 지속

1.26일(현지시간) 美 정부가 발표한 신규 LNG사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LNG 시장은 큰 가격 변동없이 안정세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 LNG 공급 물량이 충분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출처: 포춘코리아 등 언론보도 종합('24.2.5)]

- 지난 1.26일(현지시간) 바이든 美 대통령은 신규 LNG 프로젝트 인허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기후변화를 의식한 정책으로 해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1주)

◆ [비철금속] 주요 기업 감산 전망에 따른 동 가격↑, 주요 광산 가동중단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년	'23년	전년비(%)	1.4주	2.1주	전주비(%)
동	8,797	8,478	△3.6	8,371	8,447	0.9
니켈	25,605	21,474	△16.1	16,099	16,123	0.1
아연	3,478	2,647	△23.9	2,524	2,521	△0.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Glencore社 생산실적 부진 및 감산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주요 거래소 재고량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美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지연 우려로 상기 상승압력 부분적 상쇄

🌀 (니켈) 주요 니켈 광산 유지보수 전환 결정으로 감산 전망 제기되며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니켈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세로 상기 상승압력 부분적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 1주차 니켈 재고량은 70,618톤으로 전주대비 1.8% 증가, 12주 연속 증가세

◆ [철강] 中 건설업 경기둔화 우려로 철광석 가격↓, 유가하락에 따른 유연탄 가격↓

품목	연평균 (US\$/톤)			주간평균 (US\$/톤)		
	'22년	'23년	전년비(%)	1.4주	2.1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3.32	△50.3	118.28	118.20	△0.1
원료탄	364.99	295.71	△19.0	328.95	324.60	△1.3
철광석	120.26	119.32	△0.8	133.67	133.41	△0.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둔화 및 악천후에 따른 건설수요 부진 우려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브라질의 12월 철광석 수출량은 3,965만 2,000톤으로 전월대비 25.9%, 전년동월대비 23.8% 증가

🌀 (유연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中 춘절 연휴 이전 수요둔화 우려로 연료탄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15~120달러에서 박스권 횡보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1주)

◆ [희소금속] 금속별 中 춘절 연휴 전 재고 확보 여부에 따른 가격 유지

품목	연평균 (US\$/톤) (코발트: US\$/lb)			주간평균 (US\$/톤) (코발트: US\$/lb)		
	'23년	'24년	전년비(%)	1.4주	2.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5	△11.1	1,130	1,130	-
탄산리튬	35,697	13,405	△62.4	13,286	13,284	△0.01
수산화리튬	35,994	11,464	△68.2	11,199	11,198	△0.01
코발트	17.82	16.58	△6.9	16.69	16.75	0.36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331,722	0.4	273,100	271,900	△0.4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9,767	△23.8	57,300	57,300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페로망간) 공급업체가 既 체결된 공급계약 위주로 납품하고, 제안가를 유지하면서 가격 유지
- 🕒 (탄산리튬) 中 춘절 연휴 전 구매 완료 및 물류 둔화로 현물 수요 부진 下 가격 유지
 - ▶ 수산화리튬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삼원계 양극재 분야의 수요 부진 및 춘절 연휴 등으로 2월 中 수요가 1월 대비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코발트) 中 금속가는 공급업체의 공급량 증가로 가격 소폭 하락
 - ▶ 유럽시장은 中 춘절 연휴를 앞두고 거래 상한가 인상으로 가격 소폭 상승
- 🕒 (희토류) 中 춘절 연휴 전 구매 완료로 거래 감소, 전주 대비 가격 유지

◆ [에너지] 사우디 석유 생산능력 확대 계획 보류, IMF 경제성장 전망 상향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3년	'24년	전년비	1.4주	2.1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78.82	△3.28	77.80	79.38	1.58
브렌트유	82.17	79.00	△3.17	78.40	80.52	2.12
WTI	77.60	73.73	△3.87	73.11	75.50	2.3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국제 유가) ▲사우디 석유 생산능력 확대 계획 보류, ▲IMF 경제성장 전망 상향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 美 원유 재고 증가 및 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
 - ▶ 사우디 에너지부는 사우디 아람코에 석유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1,200만 b/d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지시
 - ▶ 1.26일(현지시간) 기준 美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2,191만 배럴로 전주대비 123.4만 배럴 증가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특별기고] 美·中 패권경쟁에 따른 美 무역통상 정책과 ESG와의 관계 이해



[작성]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

개관

'24.2.10일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에서는 수입규제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보복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장벽 구축, 통상과 국가안보와의 이슈 연계, 5G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특정 중국기업들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통제를 통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 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로 구성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체제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과 견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1년에 제14차 5개년 계획(規劃)을 발표하면서 최첨단 산업의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며, 내수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하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인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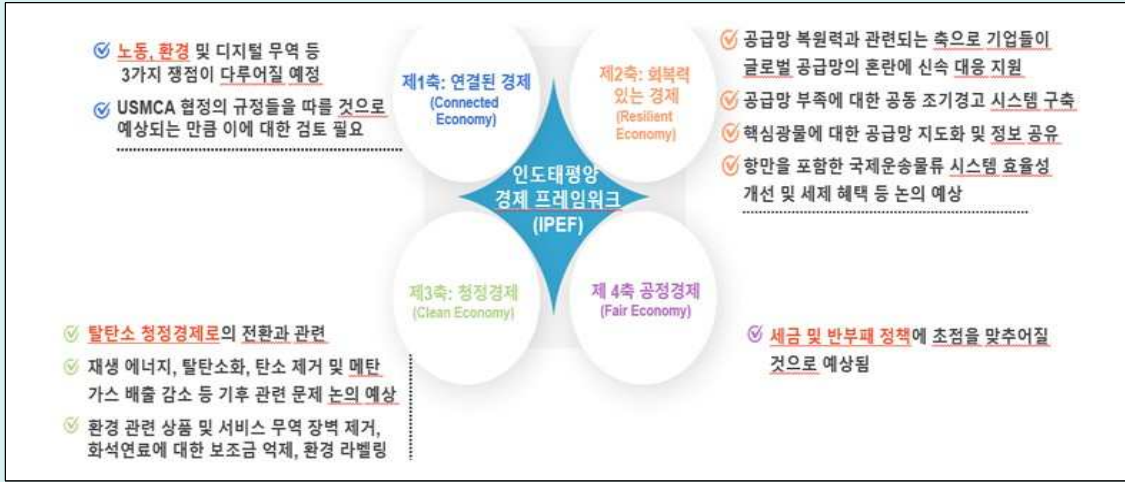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ESG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포함된 ESG 관련 법규 및 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중국과 일대일로 경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뜻을 같이 하는 (like-minded) 우방국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채택·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표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가치동맹 전략(Value Alliance Strategy)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동맹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하 'IPEF')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로 IPEF의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및 피지 등 총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무역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5.23일에 출범한 경제통상 협력체이다. IPEF는 4개의 핵심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축은 연결된 경제(무역), 제2축은 회복력 있는 경제(공급망), 제3축은 청정경제, 그리고 제4축은 공정경제이다. 제1축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하고 있고, 제2축부터 제4축까지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고 있다. 이 4개 축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표 1] IPEF 핵심 4대 축(Pillar) 요약정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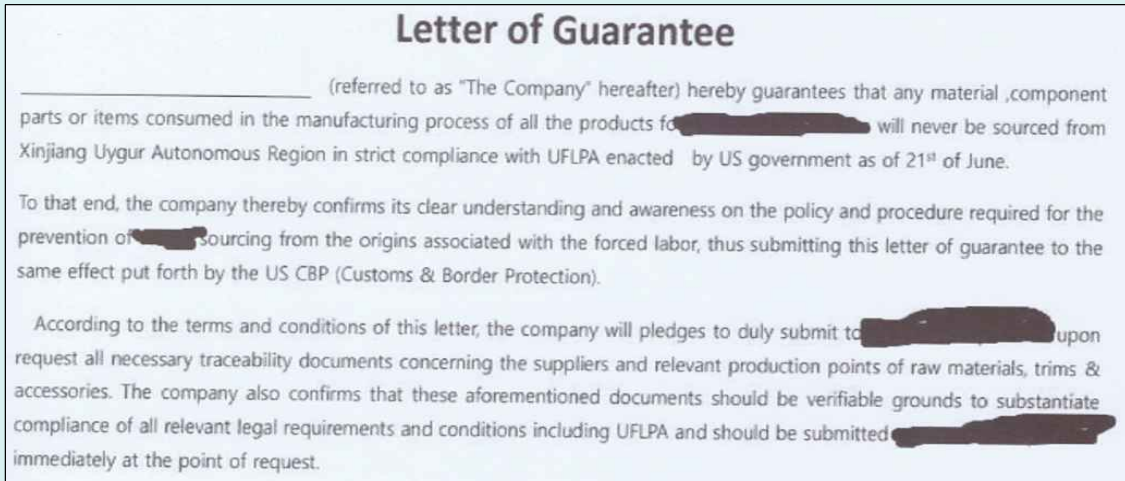
미국에서 '23.5.27일에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제2축(공급망) 협정이 타결되었고, 역시 미국에서 '23.11.5일부터 11.12일까지 개최된 IPEF 7차 협상에서 제2축(공급망)에 대한 협정 서명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제3축(청정경제)과 제4축(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된 바 있다.

필자가 위 IPEF의 핵심 4대 축에서 주목하는 점은 제1축(무역), 제3축(청정경제) 및 제4축(공정경제)에 ESG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물질적인 측면은 모방이 가능하나 가장 따라오기 힘든 문턱이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ESG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상외교 전략 중 하나인 IPEF에 포함시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미국은 ESG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법률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이다. 동 법은 '22.6.21일에 발효되었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생산된 수입품은 강제노동이 포함된 것으로 일응(prima facie) 추정하고, 해당 기업이 강제노동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30일 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실제로, 미국 CBP는 동 법이 시행된 이후 '22.10.25일까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중국발 신장産 태양광 부품 화물 1,053개를 압류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동 법의 명목상 취지와는 별개로 이 법의 제정 취지 이면에는 미국이 제조 및 공급망이 취약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의 가장 핵심소재는 폴리실리콘이고, 중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의 제조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폴리실리콘 외에도 면화 및 토마토와 같은 품목도 전 세계 생산량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한편, 미국의 해당 수입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해당 물품이나 부품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 및 조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할 것을 현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1]은 한국 업체가 미국 업체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보증서의 실제 샘플이다.

◆ [그림 1] UFLPA 관련 실제 보증서 샘플



그렇다면, UFLPA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CBP가 공항이나 항만에서 물품의 양하작업을 보류시키고 추가 입증서류를 30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필요 서류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우선 UFLPA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공급망에 대한 지도화 (Mapping)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정책에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통합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셋째, 미국 CBP가 발행하는 지침 및 문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비책은 기업의 공급망에 흩어져 있는 문서 공백과 대응능력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상의 물품의 압류 상태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둘째 미 CBP와 미국의 수입업체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문서 파악, 셋째,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필요 문서를 수집하는 체계 구축, 넷째, 기업 내에서 누가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업무 분장 수립, 다섯째, CBP에서 UFLPA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 등이다

● 기타 법률

미국은 IPEF와 UFLPA 외에도 ESG 중 사회(S) 영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2개의 법률도 제정된 바 있다.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따르면, 분쟁지역,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DRC)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망에 대해 인권의 내용을 포함한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 “Blood Diamond”에는 반군들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납치하여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데 투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는 시에라리온을 배경으로 하지만 인권 유린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무력으로 서양 선진국들이 해당 국가에 병력을 투입하여 반군을 제거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국내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채굴되고 생산되는 광물을 국제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체계(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이하 ‘KPCS’)이다. KPCS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전쟁자금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의 불법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주요국들이 가입하여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서가 없는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법으로서 캘리포니아주의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이 제정되어 발효 중이다. 동 법에 따르면, 연간 총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소매상과 제조업자는 공급망 상의 노예 또는 인신매매 관련 위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기업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ESG를 국제무역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인식하고 여러 통상 및 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국내 법률로도 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정책과 법규의 이면에 숨어 있는 전략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적절한 내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공민석,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 「JPI 정책포럼」 No. 2021-04, 제주평화연구원,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등 향후 협력 합의”, 보도참고자료, 2023. 11. 17.
- 안건형,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한국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방안”, 「과학기술과 법」 제13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이준성,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공급망 동향”,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US22-28, 2022. 7. 12.
- 임상수, “미국 세관, 중국 신장産 태양광 부품 수천억어치 압류”, 연합뉴스 기사, 2022. 11. 11.
- Jeffrey Weiss (2022), "Anti-forced Measures in the United States", 전략물자관리원 2022 수출통제제도 (금융투자 부문) 설명회 발표자료, COEX 컨퍼런스룸 301호, 2022. 11. 27.



공급망 소식통

2024 한·남아공 무역·투자 세미나 안내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한국무역협회는 주한남아공대사관,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남아공 무역·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협력 가능성이 높은 **남아공의 에너지,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한 사업과 투자 기회** 발굴을 희망하시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 일시 : '24.2.21.(수) 10:00~15:00
- ▶ 장소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0호
- ▶ 주제 : 남아공 에너지,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한 투자 기회
- ▶ 언어 : 한국어/영어 (한-영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안내

시 간	세부 일정	연 사
9:30-10:00('3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10:10('10)	환영사	들라미니 대사 (주한 남아공 대사관)
10:10-10:15('05)	인사말씀	박선경 국제협력실장 (한국무역협회)
10:15-10:40('25)	남아공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재생 가능 독립 전력 생산자 프로그램 (REIPPP) 전망	티모시 디킨스 회장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10:40-10:50('10)	ABSA 은행 개요 남아공에서 진출방법 및 사업 환경 소개	체포 은쿠베 전무이사 (ABSA 은행)
10:50-11:35('45)	남아공 전력, 재생 에너지 부문 및 핵심 광물의 현황	바브틱 발람지 전력 및 재생 담당 (ABSA 은행)
11:35-11:55('20)	질의응답 (Q&A)	-
11:55-12:00('05)	마무리 말씀	투라니 넴베 정치부 참사 (주한남아공대사관)
12:00-13:00('60)	오찬(런치박스) 및 네트워킹	-
13:00-15:00('120)	1:1 개별 미팅*	-

* 주한남아공대사관,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ABSA은행(사전 예약만 받습니다.)

관련 문의

- ▶ 관련 문의 : ☎ 02-6000-5488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공급망 소식통

한·미 이차전지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지난해 4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韓美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우리의 경제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이차전지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차전지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대한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2.20.(화) 15:00~16:30 / [주한미국대사관 용산별관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 서울] (약도 클릭)
- » 내 용 : 韓·美 공급망 전략 및 이차전지 정책

프로그램 안내

시 간	세부 일정	연 사
15:00	개회사 / 다과	-
15:05-15:15(10)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요와 한국의 전기차 공급망 투자 (Overview of IRA Incentives and ROK Investments in EV Supply Chains)	주한미국대사관
15:15-15:25(10)	IPEF 개요와 '24년 시사점 (Brief Overview of IPEF and What it Means in 2024)	주한미국대사관
15:25-15:35(10)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이차전지 정책 (Secondary Battery Policies of Saemangeum National Industrial Complex)	이광현 박사 (전북테크노파크 2차전지소재융합팀)
15:35-15:45(10)	'24년 KOTRA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소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15:45	Q&A	-

* 한·영 동시통역 제공되며, 오프더레코드로 진행됩니다.

행사 참가·문의

- » 참가신청 : [라운드 테이블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관련 문의 : ☎ 02-397-4701 / ✉ ChoGH@state.gov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 ※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며, 선착순 배정

글로벌 경제지표 (24.2.6.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2말	2/2	2/5	2/6	전일비	23말비
₩/US\$	1,188.80	1,264.50	1,288.00	1,322.60	1,330.80	1,327.60	△0.24%	3.07%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286.80	1,320.00	1,328.70	1,325.70	△0.23%	3.02%
₩/CNY	186.51	181.44	181.37	185.21	184.48	184.53	0.03%	1.74%
₩/Y100	1,032.48	945.56	912.25	903.54	897.43	894.73	△0.30%	△1.92%
Y/US\$	115.14	133.73	141.19	146.38	148.29	148.38	0.06%	5.09%
US\$/EUR	1.1318	1.0617	1.1105	1.0878	1.0784	1.0747	△0.34%	△3.22%
CNY/US\$	6.3681	6.9630	7.1092	7.1799	7.1963	7.1924	△0.05%	1.17%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26.1 (₩/¥100) 906.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23.12.29	'24.2.5(전일)	'24.2.6	전일비	'23년최저비	'23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7.40	77.98	0.58	7.67	0.9	
					0.75%	10.91%	1.17%	
철광석	97.35(5.24일)	140.50	127.20	125.50	△1.7	28.15	△15	
					△1.34%	28.92%	△10.68%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329.00	8,280.00	△49	467.5	△196
						△0.588%	5.98%	△2.31%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183.50	2,184.50	1	116	△151	
					0.05%	5.61%	△6.47%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805.00	15,620.00	△185	△265	△680	
					△1.17%	△1.67%	△4.17%	

반도체

	'21	'22	'23.11월	'23.12월	'24.1월	2/1	2/2	2/5	2월(~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66	1.74	1.86	1.92	1.93	1.93	1.93
(%, YoY)	29.9%	△23.0%	△23.1%	△14.8%	△3.6%	5.8%	5.9%	6.0%	5.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38	6.38	6.42	6.42	6.42	6.42
(%, YoY)	14.7%	10.7%	△1.7%	△2.3%	△1.9%	△0.7%	△0.7%	△0.7%	△0.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2.12.30	'23.12.29	'24.1.19	1.26	2.2	전주비(1.19)	'23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239.61	2179.09	2217.73	1.8%	26.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2.12.23	'23.12.22	'24.1.1	1.25	1.26	1.29	1.30	전일비(1.29)	'23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499	1518	1460	1397	△4.3%	△33.3%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s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